

# 몽골인 義人들께 확실한 보답을

지난달 17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주상복합 건물 신축현장 화재에서 한국인들의 목숨을 구한 이름 없는 몽골인 의인(義人) 네 명의 신원과 그 당시 상황이 현장검증을 통해 밝혀졌다. 곰보수릉, 바트델게르, 삼보도노드, 파타씨가 바로 그들이다. 유도선수였던 곰보수릉씨가 쓰러진 한국인 노동자를 일으켜 세웠고, 파타씨와 삼보도노드씨가 함께 부축을 해 옥상에 데려왔으며, 몽골 소방관 출신인 바트델게르씨가 인공호흡을 해 목숨을 살려냈다. 그들도 구조 활동 중 연기를 마신 탓에 병원으로 실려갔다. 그러나 그들은 당국에 적발될 경우 강제 퇴거 대상인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고 도망치듯 병원을 나와 잠적하였다.

5일 법무부는 네 명의 몽골인 의인이 긴급 재난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급한 상황에 처한 한국인들을 구조한 점을 고려하여 그들에게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한 유효기간 1년의 합법적 체류 자격을 주고, 일자리도 알선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들에게 불법 체류 신분을 면하게 해준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인의 생명을 구했다고 불법 체류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헌이 워낙 크므로 작은 과오는 너그럽게 사면한 것이다.

그렇지만 무려 11명의 목숨을 구한 그들의 공로를 고려할 때 보상으로 '1년간 합법 체류 허용'은 내용상 너무 초라하다는 느낌이다. 그들



설 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폐쇄적 나라이미지 벗을 기회  
'합법체류 1년 허용'으로 미흡

에게 영주권을 주어야 한다. 여기엔 법률적 근거도 있다. 출입국관리법령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에게 영주(F-5) 사증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를 세운 외국인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우리나라의 개방성을 과시하고, 우리 스스로 외국인에 대해 닫힌 마음을 열어젖히는 데 더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화교(華僑)조차도 살기 힘든 폐쇄적인 나라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는 데 이보다 더 좋은 정책이 있을까?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는 자국 사회에 특별한 공헌을 한 외국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고대 로마제국에서는 특별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외국인이나 식민지인은 물론이고 노예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현대 미국이나 프랑스 국적법

에는 전쟁기간에 현역 군 복무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특별 공로를 세운 외국인의 귀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누구든 국가와 사회에 공적을 세우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한다는 원칙이 지켜지면서,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되었고, 결국 국가 번영의 밑거름이 되었다.

사람들이 삶의 기회를 찾아서 국경을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이주의 시대'에 영주권은 각광받는 '시민권' 양식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거의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귀화 허용'은 대안이 되기 힘들 뿐 아니라 그들의 출신국 정부를 자극할 우려까지 있다. 영주권자가 되면 그들은 가족을 한국으로 초청할 수도 있고, 국내 체류와 취업 및 교육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우리 사회 전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한 의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은 '옳고 바름'(義)의 기강을 세우는 출발점이다. 일본인들이 철로에 떨어진 취객을 구하고 숨진 한국인 이수현씨를 의인으로 받들어 지극히 모시는 것처럼 우리도 몽골의 의인들에게 합당한 대접을 해야 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다면 서울특별시장은 과거 거스 히딩크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주었던 '명예 서울시민증'을 그들에게 수여하고, '자랑스러운 서울 시민'으로 대접하라고도 권하고 싶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